

# IATA, 항공화물 디지털 화물 표준으로서 ONE Record 확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

해당국가	국제	기관(기업)	국제항공 운송협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물류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	----

- 국제항공운송협회(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, IATA)는 항공화물이 다수 이해 관계자 간 정보공유에 의존하고도 종이 기반 관행이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, 업계 공동 원칙(디지털화 리더십 헌장)과 데이터 공유 표준(ONE Record)을 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
  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는 ‘Digitalization Leadership Charter(디지털화 리더십 헌장)’를 통해 공급망 전 구간에서 상호운용성과 글로벌 표준 기반의 공동 디지털 전략을 요구
  - 사이버보안 대응과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, 지속가능한 디지털화, 윤리적 기술 활용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
- 1. 업계 공동 원칙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
  - 공급망 전체에서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한 통합 디지털 전략과 글로벌 표준 사용을 원칙으로 명시
  - 사이버보안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강조하고, 생성형 AI 활용은 “책임 있는 사용”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포함
  - 친환경 기술 이니셔티브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성, 디지털 트렌드 대응과 모범관행 정립, 신규 기술의 윤리적 수용을 함께 제시
- 2. 2026년 목표로 ONE Record 중심의 화물 데이터 공유 표준 확산
  - 헌장의 중심 수단으로 ONE Record를 제시하고, 운송장(화물) 데이터 공유의 단일 표준을 통해 공급망 가시성과 협업을 높이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
  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 회원사는 2026년 1월까지 ONE Record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, Cathay Cargo와 Lufthansa Cargo가 이미 목표를 충족했다고 소개
- 3. 세관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대응한 투명성 강화와 국경절차 디지털화
  -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단계별 추적 투명성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전제로, IATA Interactive Cargo Guidance(대화형 화물 가이드) 업데이트를 통해 추적장치 활용, 운송 중 조건의 품질·정확성 확보 프레임 제공
  - 브라질의 화물 반출 시간을 5일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고 수작업 처리 최대 90% 감축이 된 사례를 들어, 디지털화는 업계 단독이 아니라 세관 등 전 이해관계자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
  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 디지털 화물 솔루션 예시로 LAR Verify(살아있는 동물 운송 규정 준수 자동화)를 소개하며, 계획·예약·접수·핸들링 단계의 규정 접근성과 다수 화물관리시스템 연동을 강조

※ 출처 : IATA(2025.11), Accelerating Cargo Digitalization